

# 효당茶는 ‘불교+茶’... 대중화 40여년

채원화 원장 (한국 효당본가 반야로 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은... 1946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연세대 사학과 및 동대학원(한국사 전공)을 졸업했다. 1968년 효당 스님께 정식 입문하여 10여년간 원효 교학 수학 및 차도 수련을 했다. 1983년 7월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을 개원해 40여년 차도수련 및 '반야로' 고유 녹차제차에 매진, 효당 스님의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왔다. 현재까지 △파리주불한국문화원 초청 한국전통차도 문화행사 개최 △효당 최범술 스님 추모학술대회 개최 △한·불 수교 120주년기념 초청공연 △벨라루스 국립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공연 및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ISAA '러어대학 한국어교수 협의회' 창립기념 초청공연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 및 효당 차문화상 제정 수여 및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 발간 기념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사진=노덕현 기자

“차선일여(茶禪一如)라 하는데 차와 선은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보통 선이라고 하면 좌선을 이야기하는데 좌선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차도에서는 간이 맞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짜고 시고 달고 쓰고 짜고 맵고 등이 육미(六味)의 맛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는 맛을 우려내야 해요. 이는 오랜 차도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일상에서 늘 화두를 들듯 차도를 통해 자신을 반추해 스스로를 닦는 것을 중요시 여기죠. 이는 개인을 넘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국가를 이루고 더 나아가 우주와도 합일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한국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은 차와 선의 연관성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는 1968년 효당 스님에게 정식 입문해 차도 수련을 한 이후 40여년 차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6월 15일 인사동에 위치한 반야로차도문화원을 찾았다. 부적이 있는 인사동의 한복판에서 고요히 차를 마시며 진정한 차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불교와의 만남에서부터 차도입문 반야로차도문화원 개원 그리고 최근 효당 최범술 스님의 문집발간까지 채원화 원장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았다.

진주의 수재 화두를 들다  
진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채 원장은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수재였다. 출가를 한 외삼촌의 영향으로 다양한 문헌서적을 읽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일었다. 화두였다.

그때부터 모든 일에 흥미를 잃었다. ‘부일 장학생(정수 장학회의 전신) 50명 중에 여학생으로는 1등을 할 만큼 공부를 잘했어. 중3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차피 죽을텐데 1등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니 너무 힘들었죠. 고등학교 진학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진주여고 전교 1등으로 입학할 줄 알았는데 2등을 했어요. 너무 창피했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계속 마음속 의문이 떠나지 않았고 결국은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효당 스님은 경남 사천 출생으로 독립이 될 때까지 국내외에서 동지들과 함께 항일 항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피검되어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제헌 국회의원 국민대학 해인대학 해인고등학교 등의 설립에 참가했으며 (만해한용운전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만년에는 오로지 불교인으로서 평생전념, 원효 스님의 사상 및 그 교학의 복원과 연구에 전념하여 도제 양성에 힘을 기울였고 또한 잊혀져가

던 차문화를 증흥시킨 인물이다. 외삼촌과 함께 경남 사천의 다술사를 찾았지만 부산에 강의를 나간 관계로 만날 수가 없었다. 이후 다시한번 스님을 찾았지만 스님은 여전히 자리에 없었다. “그때 다행히 총무스님의 도움으로 스님의 방을 볼 수 있었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차구들이 즐비했고 장서가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으로 낡긴 했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때 차구를 처음 보았는데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했어요. 그 방을 보면서 스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 원장은 다음날까지 스님을 기다리기로 하고 다술사 말사로 비구니 스님들이 기거하는 봉일암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서 본 종이쪽지 하나로 생의 일대 혁명이 일어난다.

“휴지 대용으로 걸어 놓은 종이 문지를 자세히 보니 거기에 어떤 글씨가 있었어요. 바로 반야심경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읽는 반야심경이었어요. 원

졸업논문 위해 효당 스님과 첫 대면 이후 10여년 동안 다술사에서 원효 교학 공부와 차도 수련

茶는 치우침 없는 중도의 가르침 1983년 반야로 차도문화원 개원

30여년간 제자 120여명 배출 차도·선차법·수식법·선시 등 지도

2013년 효당차문화상 제정 효당가 제차법 전하며 차문화 보급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초청 차도 시연

문과 한글이 번갈아 가며 써있었는데, 바로 최범술 스님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최종으로 봤던 교정본이었어요. 거기에서 ‘공(空)’이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릿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났어요.”

반야심경의 내용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찾아 헤메던 여고생 채원화에게 큰 해답을 주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미완성을 향해 가지만 결국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해답을 얻었으니 최범술 스님을 만날 필요도 없이 다음날 아침 산을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물도 넘어가고 밭도 넘어갔어요.” 이후 학교로 복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래보다 2년 늦게 연세대 사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다.

효당 스님과의 만남, 차의 맥을 잇다  
대학시절 불교에 심취해 있던 채 원장은 졸업논문으로 원효사상에 대해서 쓰고자 지도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한다. 그때 담당 교수는 다술사의 효당 스님

을 찾아가 보라고 권해준다. “고등학교 때 두 번이나 만나보고자 했지만 못났는데 논문 지도를 받으며 결국 뵈게 되었죠. 스님을 보는 순간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맑은 기운에 압도당했어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가장 도인 같은 분이셨죠. 인간적으로 또 도학적으로 매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불교에 대해 심도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채 원장의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불교가 기본적으로 위협적인 종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스님을 만나면서 불교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효당 스님의 제자로 입문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술사에서 머물며 스님을 모시고 원효교학을 배우고 차도를 수련했죠.”

이후 1979년 효당 스님이 입적을 하고 3년 정도 다술사에서 차도를 이끌었던 채 원장은 1983년 반야로차도문화원을 개원했다. 효당 스님의 제자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반야로차도문화원의 반야로(般若露)는 만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깨닫는 지혜의 이슬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차를 마실 때 한 방울 한 방울이 목을 정화시켜 지혜가 넘쳐나고 자비가 충만한 마음으로 중생을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茶道)란 차 마시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 직관적인 선의 경계가 가 닿는 것을 말하지요.”

차와 선은 한결같이 온 몸과 마음을 기울여 참구하여야만 그 경계가 터득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선일미(茶禪一味) 차선일체(茶禪一體)라는 말은 차를 달여 마시며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일체임을 체득하는 것 그것이 견성이라고 채 원장은 말한다.

“차는 내용과 형식 모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차도가 외형만 강조한다고 나무라기도 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의례를 무시하고는 살 수 없으니 때와 장소에 맞는 정돈된 선차 양식이 필요합니다. 차와 간을 맞추는 경지는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말할 때 심잡다, 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는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차도란 이런 치우침을 넘어 중도를 이루는 것을 말하죠. 차를 다루는 자세와 행위가 자연스럽고, 겸손하며 차 맛의 간이 자고 안정감이 있으며, 때와 장소에 어울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생활을 하면 차도를 이루는 것이죠.”

세계로 향하는 반야로의 차문화

효당 스님은 한국 차도계에 남긴 업적은 크게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한국 최초의 체계적인 차서인 <한국의 차도>를 저술해 차생활 입문서를 남긴 것이고, 둘째로는 정제증차(精製蒸茶) 제차법을 남겼다. 또한 차인들의 동호회 모임인 한국차도회를 발족시켰는데 이는 한국 차인회 결성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채 원장은 장차 가마솥으로 직접 제차를 하는 전통 제차법으로 차를 만들고 제자를 길러내는 등 효당 스님의 차도를 계승하는 데에 최선을 기울여왔다. “매

###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가 5,000원(1권)  
※ 칸만 그려져 있는 공책입니다

###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여> 정가 1,0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정가 8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동녀영가옷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http://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불교달력, 서적, 사경지, 연등, 염주, 향, 양초, 다포, 4.8용품, 백중용품 ]